

국내 출판계의 총체적 불황 속에서도 교계 출판사는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올 한해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법정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가 전국 주요서점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여시아문이 집계한 올해 '베스트블서 10'을 보면 좋은 책은

언제든지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생활 속의 기도법>과 <불교입문>이 96년 이후 3년간 계속해서 베스트 10에 오른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98 베스트에 들어가는 10권의 불서를 읽은 저명인사들의 200자 독후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98 불서 베스트 10 - 200자 독후감

■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스님의 창빈과 무소유 정신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수필이 아니면서도 수필 같은 진진함이 스며있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나타나는 호랑이 포효 같은 법문은 세상사에 쫓겨 사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것로부터의 자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스님의 맑은 삶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이 가난한가를 진지하게 성찰케 한다. 함정환(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특히 생활불교와 관련한 경우가 많아 일상에서 필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 좋다. 잠깐 보고 내려놓으려 해도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다. 지금도 소중한 소지품처럼 곁에 두고 있다. 윤정광(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이 책은 한마디로 금강경 해설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명적인 해설서이다. 다양한 생활의 실례를 넣어 경의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것을 보여 준 것도 특이하다. '3분 대승경론'을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 하는 해석, '4분 무주상보살'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보시'라는 관점은 기존의 해설서에서 보지 못했던 시인하면서도 독창성이 넘쳐 흐르는 내용이었다. 박상희(대한매일신문사 편집부장)



■ 불교입문

조계종단에서 불교 입문자를 위한 안내서로 편찬한 책이지만 초심자 뿐만 아니라 불교를 원만하게 아는 불자들이 보아도 유익하도록 꾸며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불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교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식과 문화, 상식 등을 간명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또 사찰에서의 예절, 수행·기도하는 법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더욱 좋다. 현진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분명히 불교 수행법 중의 하나다. 중국불교의 영향으로 선을 중시하면서 정교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기록적 형위로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책을 펼쳐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진다. 법문의 이치를 찾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 수행방법인가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신도들의 체험담은 감동적이었고, 불교를 더욱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누구든 읽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질 것이다. 김희옥(수원지법 평택지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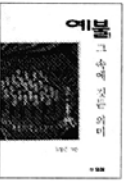
■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지식인은 지식 때문에 결함이 있고 배움이 적은 사람은 생각에 매여 바른길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대행스님의 심법(心法)은 이런 경계에 얽매임이 없이 누구나 쉽게 불법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 매력이 있다. 상강상황에 따라 불자들이 궁극해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행스님의 법문은 신행생애에도 큰 도움을 준다. 우리 연구소 불자회 회원들에게 이 책을 법보시했는데 모두 만족했다. 윤현로(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의 진정한 의미와 올바른 신행생애의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이다. 불자들은 보통 막연히 예불하는 경우가 많다. 예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기복과 이기, 아집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 책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읽다보면 예불의 의미와 자제는 물론 자기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길러지게 됨을 느끼게 된다. 임연숙(조계종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 불보살 명호 이야기

가장 가까우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불보살의 명호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경전 속에 나타난 여러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이야기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되어 지루한 줄 모르고 읽어 내려갈 기억이 난다. 시종 잔잔하고 섬세한 문체도 매력적이었다. 저자의 절절한 불심이 묻어나는 책 곳곳에서 다시 한 번 나 자신의 신행생활을 점검해보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정병호(동국대 부총장)



■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우리는 생활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마음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루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토대다. 이것은 마음의 부리를 아는 것이며, 삶의 여유를 찾는 기본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 비단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의 지혜로 삼을만한 가르침이 넘쳐있다. 불교를 생활 속에 전하는 책이다. 심성구(원리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

언뜻 보면 동서양 역사적 인물들의 죽음의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죽음이란 아닌 삶이라는 주제를 완숙하게 풀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찰하게 하고 그러면서 머리 속에 남는 교훈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행간에 스며있는 뜻이나 문장의 아름다움도 좋았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양서로 꼽을 만하다. 최병호(한국수필산책문학회장)



'산에는 꽃이 피네' 펴낸 김형균 동쪽나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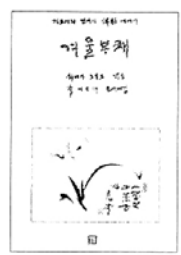
“좋은책 만드는 일 출판인의 사명이죠”

“동쪽나라에 해됐죠” 지난 6월 출간된 <산에는 꽃이 피네>가 서울 주요 서점가에서 4개월여 동안 줄곧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올해의 베스트셀러'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오르자 책을 출간한 동쪽나라 김형균대표(47)는 입가에 떠올린 함박웃음을 그칠 줄 모른다. 35만부나 팔렸으니 불교서적으로 이런 대박(출판가에서 크게 히트했을 때 쓰는 용어)을 터뜨리 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 하지만 결코 우연은 아니다. 여기에는 '독자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삶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을 펴내자'는 김대표의 굳힌 없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84년 교계 출판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좌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만 만들어낸다면 일반인이라도 불교책을 읽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한시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교계 출판 경력 15년. 어느새 이 집안에서 고참이 되어버린 때문인지 교계출판에 대한 책임감이 늘 무겁게 느껴진다. “아직도 불자들 사이에 책 읽는 풍토가 성숙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합니다. 교계 출판사는 결국 불자들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책 읽는 풍토야말로 불교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김대표는 불교의 가르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불교출판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보냈다. 김형균 대표는 84년 월간 <금강> 편집장과 지금은 폐간된 <대중불교> 편집장을 지내고 86년 불지사와 동쪽나라를 설립, 불교출판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에세이 '겨울부채'

일본스님 쓰고 목사가 번역 수녀들 출간



까리파스수녀회가 운영하는 생활성서사가 펴낸 불교에세이 <겨울부채>는 '종교화해'의 책이다. 일본 스님이 쓰고 감리교 목사가 번역하고 수녀들이 펴냈기 때문이다. <겨울부채>(원제: December Fan)는 일본불교 진종(眞宗)의 스님이자 철학자인 기요자와 만시(1863~1909)가 입적하기 5년 사이에 쓴 글들을 제자 하네다 노부오가 84년 영역해 엮은 책. 7편의 짧은 글들로 1백여쪽에 불과하지만 '기요자와 스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일본불교를 말할 수 없다'는 일본 불교계 및 철학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내용의 깊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재생용지에 번역자의 육필을 그대로 옮긴 것이 특이하다. 이 책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 스님의 삶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일깨워 준다. 기요자와 스님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으로 입증하기까지는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란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스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자아를 초월한 힘을 통한 해방'을 주제로 한 글에는 이런 스님의 불교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기하면 '불자들이여, 어찌서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가'라는 주제의 글에서는 오들의 승려들이 부처님의 제자된 위엄을 스스로 낮추고 속세의 동정을 구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한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에 옮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번역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현주 목사(53)는 후배 목사의 권유로 이 책을 읽고난 후 기요자와 스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번역을 결심했다. 값 3천원. 한명우 기자



보살사상성립 체계적 정리 이봉순씨 학술서 펴내

'상구부리 화하종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함축시켜 표현할 수 있는 보살사상은 불교의 핵심사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살사상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은데다,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성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주부학자 이봉순씨가 펴낸 <보살사상 성립사 연구>(불광출판부 권)는 초기불교에서부터 초기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보살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로, 10년 가까이 보살사상 연구에 매진해 온 이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제1장에서는 초기경전인 4아함 등 남전의 불전에서 보살사상을 찾아 보살의 의미와 보살의 실천행법 등을 망라했으며, 2장에서는 부파불교의 대표적 학파인 설일체유부(設一切有部)와 대중부(大眾部) 등의 보살사상을 살피면서 부파불교의 보살사상이 초기불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장에서는 초기의 대표적 대승경전인 <대법바라밀경> <유마경> <묘법연화경> <무량수경> 등의 보살사상을 살피면서 보살도가 차츰 정비되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설명했다. 값 1만5천원.

책방 '여시아문' 집계 '올해의 베스트블서 2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2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윤순	신우당
4	불교입문	조계종편찬부	조계종출판사
5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6	생활 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7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8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9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타	대원정사
10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	맹란자	세운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1	불교교리	조계종편찬부	조계종출판사
12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효림
13	기도	일타	효림
14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렐	여시아문
15	무소유	법정	범우사
16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17	자기를 바로잡시다	성철	강경각
18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침하
19	참선교육	현담	조계종총서회
20	설법 그 이론과 실제	정순일	민족사

016 PCS 최저가격·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한화 G2-F21

절전기능
-세계최초의 광센서 착용
깨끗한 통화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44×26mm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만)

한화 F31

현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43×20mm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사은가격 75,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마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일괄 기능

크 기 114×50×22mm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가격 20,000원 (가입비분납)

LGP-6200F

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알려지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45×25mm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사은 가격 60,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메타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45×23mm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사은 가격 65,000원 (가입비분납)

요금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를 결제 해야 합니다. 신불카드 2,000원 증정 증정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개월 무료이용 요금)

신청서 접수 :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89970 현대불교신문사